

社 說

울고 그름의 잣대 잃지 말아야 — 제43회 학위수여식에 부쳐

그간 형식의 공을 이루어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는 급년도 학위수여자들이 모두에게 대학보다는 완전 공부를 보냈다. 제 아무리 그 공을 완전하게 공부한 세월이라고는 하지만, 그 '완전 공부'의 상징인 학사나 석사나 박사학위를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학살의 한 대목을 겪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지는 않은가? 여자들이 그걸다. 그러나 학위라는 배양장치는 온갖 학살의 학살은 이제 세상 밖, 그 냉혹한 시장에서 그 진위 여부와 가격의 고하를 실험받게 된다. 거기서 여자들은 실험의 높은 대우와 칭찬에 여러모로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대보다 못한 박대와 부러워 할 수 없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세상살이는 학과 안보다 밖이고, 타산적이고, 냉각된 것이다.

그 속에서 여자들이 안는 것은 진리, 자유, 민주 따위의 다양한 의미와 함축된 추상적 명사나 수식, 지혜, 성공, 승진 따위의 구체적이고 가슴에 닿는 단박한 단어들이 일 것이다. 그 속에서 여자들은 단박에서 연약한 원리와 원칙을, 그리고 예에 대한 교묘한 처리를, 그리고 현실을, 그리고 성공을 위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예에 대한 교묘한 처리를, 그리고 현실을, 그리고 성공을 위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예에 대한 교묘한 처리를, 그리고 현실을, 그리고 성공을 위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

이들처럼 실력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직장내의 또한 역학관계, 부정부(不正)의 무리들 가운데 그간 학위에서 배우고 익힌 울고 그름과 마땅한 정당화 등에 대한 기준을 잃게 내팽개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오늘날이나 내일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분노와 새로운 모색 속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새로운 사회,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지난한 몸짓들이 이루어져 여기 저기서 새 싹들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힐 때 우리 경제의 교육이념 '문화세계의 창조'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울고 그름이 이제 삶을 개척하는 것이 어디 여러분 뿐이고, 우리 경제 역시 교육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롭게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화의 물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라는 구조적 상황에 빠지는 것만은 전국의 교육 환경의 변화와 여러분들이 두루 알 것이므로 종언의 운명이다. 다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의 지성의 요망인 정도도 이러한 학위의 상충을 끝내 이겨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여러분은 밖에서 성장하고, 경제는 여러분의 보다 나은 지성의 고향으로서 언제나 꽃을 피우고 싶은 곳이고, 여러분은 그 고향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사회에서 한껏 싹을 틔우는 사람이 되어 다시 만났을 기약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앞길에 어떠한 난관이 닥쳐도 꿋꿋이 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구성원 모두의 새로운 각오 필요

진 거슬러봐도 끝나고 이제 교양에는 졸업장을 보려는 어려움과 세뇌를 맞이하는 실험인으로 분투하기가 필요하다.

과다는 이제까지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족했지만 대학 생활이 바뀌고 있는데 있어서는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듯 하다.

교수로서, 직원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그렇게 되면 해 줄일 것도 있고 해 줄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학이 바뀌고 있는데 있어서는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듯 하다.

대학의 참모습을 일깨워 주고 그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주체로 서서 자신의 자리에 서 조그마한 힘이나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막 동풍을 몰아치는 그들에게 보려는 어려움과 세뇌를 맞이하는 실험인으로 분투하기가 필요하다.

그들 모두의 새로운 각오 필요

대학의 참모습을 일깨워 주고 그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주체로 서서 자신의 자리에 서 조그마한 힘이나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막 동풍을 몰아치는 그들에게 보려는 어려움과 세뇌를 맞이하는 실험인으로 분투하기가 필요하다.

과다는 이제까지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졠폰했지만 대학 생활이 바뀌고 있는데 있어서는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듯 하다.

여성전문직의 가벼움



전문직에서의 낮은 여성의 위치

조 정 아
(미래여성연구소 연구원)

얼마전 히트친 광고문구 중에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라는 것이 있었다. 방송에 등장하는 여성성도 과거의 수동적인 미인상에서 이제는 프로처럼, 다이너미즘에서부터 겸손, 군인적인 '커리어 우먼' 특히 전문직 여성들이 대거 광고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많은 여성들이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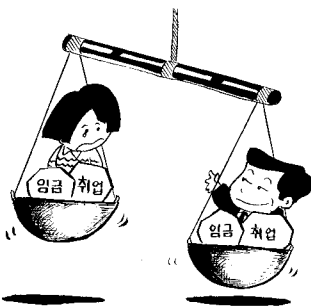
"전문직"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며 모호한 상황에서 '전문'이라고 하면 마치 그 자체가 특별한 대우와 지위를 약속해 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전문직의 개념과 명목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동되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직업에 대한 여성의 인식에도 그대로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것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 보니

고 있는 직업인 교사나 간호사 또는 약사로서 그리고 사무직 내에서는 비서나 도서로 사서로서의 직업들이 매우 높다. 이들 직업에서만 직업내 여성 비율이 교원의 경우 16%, 의료계의 경우 60%를 차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전문직에서는 모두 5%미만이며, 1%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노동부 1991).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불균형 현상은 대졸자들이 대졸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에 신인사제도도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직의 현실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앞의 조사에 의하면 전문직은 일단 채용 후에는 비교적 승진에 있어서 다른 직종보다는 차별이 적다. 그러나 승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승진률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사회내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의 구조 속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전문직에서의 낮은 여성의 위치는 단순히 임금차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 교육 기회,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교육 기회,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별직종분리현상, 여성 저임금의 근본문제 남녀고용평등법 강력히 실행돼야

'전문직'이라는 데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의 여대생들은 평등직업을 갖기 원하고, 이를 위해 여성차별이 없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직을 선택한다. 과연 전문직에 일단 진입하면 하위 여성차별이 없을까?

본인의 능력에 적절히 좌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 평등직업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자유직 여성들은 극소수의 성공한 여성들이다.

이와같은 신분보장이 불확실한 입시에서 여성들이 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직업에 대한 여성의 선호는 그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직업의 특성상 새로운 감각과 발명 작업도 불사해야 할 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들면서 대외적 위상이 떨어진다. 또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직업이기도 한 직종에 남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이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다. 전업이나 비직업적 등 안정을 주는 기제가 있었다면 더 나은 보수와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 발상작가의 문은 훨씬 더 좁거나 남성에겐 전유물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구성적도 있다.

결국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 평등직업을 보장할 수 없는 입시적으로 고용 불안정성 심각하다는 점에서는 다른 직업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전문직이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이

전문직에서의 낮은 여성의 위치

전문직에서의 낮은 여성의 위치는 단순히 임금차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 교육 기회,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교육 기회,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POSCO 매시지 개강반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개강파티 동아리 M.T, 미팅, 축제 - 마음껏 즐기십시오, 경험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내와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象牙塔 이곳에는 학문과 진리의 문, 젊음과 낭만의 문 그리고 수많은 미래의 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 오십시오. 밝은 내일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